

# BOC코리아, 임금 25% 인상 합의

## 임금협상 타결 불구 회사부담 상당 ... 직원 복지수준 상향조정

임금 인상폭을 놓고 6개월째 노사 갈등을 빚어온 BOC코리아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8월16일 BOC코리아 노조(위원장 이광영)에 따르면, 노사는 8월14일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 회의실에서 협상을 재개하고 기본급과 수당 등 전체 임금을 24.86% 인상기로 합의했다.

또 자녀 1명에게 학자금 100%를 지원하던 것을 2명 이상의 자녀에게도 2004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는 50%, 2005년부터는 전액을 지원기로 하는 한편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BOC코리아 노조는 2월 초부터 임금 31% 인상 등을 놓고 회사측과 12차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매번 결렬됨에 따라 8월7일 파업에 들어갔다.

<화학저널 2004/08/17>